

김관영 도지사 14개 시군 순회방문 마무리

'함께 성공' 의기투합

김관영 도지사가 도정과 도내 14개 시·군정을 서로 공유해 함께 성공을 거두며 새로운 전복을 구현하기 위한 공감 소통의 시간을 모두 마무리했다.

전북도는 민선 8기 2년차를 맞아 2월부터 현장 중심 실용주의를 강조한 김 도지사의 의지에 따라 2020년 이후 중단된 시·군방문을 3년 만에 추진했다.

민선 8기 김관영 도정은 시·군과 성공 파트너십 강화를 통해 더 특별한 전북시대 준비를 원팀으로 함께 뛰어야 한다는 판단 아래 더 특별한 전북시대, 시·군과 함께 혁신, 함께 성공의 슬로건으로 지난 2월 7일 임실군 방문을 시작으로 4월 18일 순창군 방문까지 70여일간의 대장정을 마쳤다.

민선 8기 시·군 방문은 지역 각급 기관·단체장 위주의 형식적인 대면이나 의전 행사를 최소화하고, 도지사가 시·군청 청원과 도정철학을 공유하고, 직접 도민과 만나 현장의 이야기를 듣고 문제를 찾아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등 현장소통에 집중했다.

지난 시·군 방문기간에 김 지사는 일일 명예시장·군수 위촉을 시작으로 시·군별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을 논의하는 간부회의를 주재했다. 특히, 간부회의 자리에서 △전주시 왕의공원 프로젝트, △군산시 특수목적선 선진화단지 구축, △남원시 한파우 아파트빌리 프로젝트 등 굵직한 대형 사업을 도가 적극 협조하기로 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법률,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동부권 발전사업 등 시·군과 함께 추진할 도정 현안을 당부하는 등 도정과 시·군정을 공유하



김관영 도지사가 도정과 도내 14개 시·군정을 서로 공유해 함께 성공을 거두며 새로운 전복을 구현하기 위한 공감 소통의 시간을 모두 마무리했다.

시군 직원·도민 등 5800여명 만나 현장목소리 경청 120여건 건의사항 만족할 때까지 해결 의지 다져

는 의미있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시·군청 청원과의 만남 시간을 통해 민선 8기 현안 해결의 경청을 토대로 적극적인 도전정신, 속도감 있는 사업 추진 등 도정 철학을 공유하고 청원과 소통하며 서로를 이해하는 시간을 나눴다. 특히, 청원과의 소통시간에는 도지사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 짧은 직원들과의 소통기술, 슬기로운 직장생활 꿀팁 등 청원들과 격의없는 대화를 나눴다.

또한 완주 떡메마을, 전주 혁신창업허브, 정읍 SK백실리스, 무주 스마트팜 무주원 등 다양한 현장을 방문해 애로사항과 개선방안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아울러 순창 농촌유학그룹, 고창 청년협업체, 장수 농업인단체, 김제 수출기업그룹 등 직능별로 다양한 도민을 직접 만나 소통하며 최일선에서의 애로사항을 파악하고 건의사

항을 모아 도정 운영에 반영하기로 했다.

김관영 도지사는 "도와 시군이 함께 혁신하고, 함께 성공해야 한다."며 "시·군의 일선 공무원들과 소통하며 새로운 전복을 향한 의지를 나눴다. 도와 시군이 소통하고 협력해 도민을 위한 더 나은 행정을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 지사는 시·군방문 기간 동안 5,800여명의 시·군 직원, 기업, 도민들을 만나 총 120여건의 다양한 현장 건의가 제시됐으며, 건의된 사항은 앞으로도 꾸준히 관리하면서 도민이 만족할 때까지 해결해 나가는 방침이다. /김재훈 기자

종교문화유산 보존·활용 체계화

이명연 도의원 대표발의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전북도의회 이명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라북도 종교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조례'(이하 종교문화유산조례)가 지난 14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그간 법정 문화재가 아니라는 이유로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시피 했던 도내 종교문화유산도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활용이 가능해졌다.



종교사적 의의가 있는 건축물을 모두 담아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비지정문화재라고 해서 보존 가치가 없음을 뜻하는 게 아닌 것처럼 종교문화유산 역시 법정 문화재가 아니라고 해서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게 이번 조례제정을 추진한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명연 의원은 "종교는 인류가 걸어온 문화적 발자취이자 정신문화의 근간이고 종교문화유산은 그 흔적을 담고 있고 있기 때문에 제도적 영역으로 편입시켜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특히 전북은 천주교와 불교는 물론이고 초기 개신교와 원불교, 천도교 등 다양한 종교의 흔적이 산재해 있는 종교문화유산의 보고(寶庫)이기 때문에 조례제정을 통해서 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종교관광의 새로운 지평이 열릴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총 18개 조항으로 구성된 종교문화유산조례는 종교문화유산의 개념과 종교문화유산의 선정기준 및 절차, 그리고 종교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종교문화유산조례는 현행 문화재 관계 법령이 포괄하지 못하는 종교문화유산까지 제도적 영역으로 편입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

현행 문화재 관계 법령은 유형과 무형으로 구분 법적인 지정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종교 성지나

끝으로 종교문화유산조례는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된 조례로, 지난해 활동했던 '전라북도의회 문화관광산업 활성화 연구회'(대표의원 이명연) 활동 결과물의 일환으로서 연구단체 소속 의원 전원이 공동발의해 제정됐다. /김재훈 기자

의무관리대상 제외 공동주택 기준 완화

한경봉 군산시의원 대표발의 개정 조례안, 상임위 가결

군산시의회 한경봉 의원이(사 선거구) 대표 발의한 군산시 공동주택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4일 경제건설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전용면적 및 세대수 제한 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지원 가능하게 하는 등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대상의 범위를 규정했다.

한경봉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을 제외한 공동주택 기준을 완화해 입주주민의 주거 복지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해당 조례안은 25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군산=이재훈 기자

이 조례안은 기존 규정 중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업 대상에 대해 불합리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발의했다. 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의무관리

양곡관리법 개정안 폐기 등 어려운 농민 위해

김한수 남원시의원, 남원농협과 두차례 간담회

남원시의회 김한수 의원(주생·대산·사매·덕과·보월)이 쌀값 하락, 양곡관리법 개정안 폐기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민들을 위해 발 벗고 나서며 남원농협과 두 차례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 결과 당초 포대당 4만3,000원이던 참동진(남원시 수매 품종) 종자 가격을 3만8,000원으로 12% 낮추기로 합의해 쌀 농가에 총 1,500만원(3,000포대)의 혜택이 돌아가게 되었다.

김 의원은 "경영위기에 놓인 농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늘 고민하고 있다며, 어려운 영농환경을 극복하고 활력 넘치는 농촌을 만들기 위해 앞으로도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의원들은 도내 금융산업 발전을 위해 금융산업 발전 및 투자유치를 위한 LFF의 역할을 면밀히 살폈다.

나인권 위원장은 "이번 해외 정책연수를 통해 농업선진국인 네덜란드의 스마트팜 현황 및 산업 동향 국제경제금융중심지로서 룩셈부르크가 발전하게 된 배경 등을 파악함으로써 전북형 스마트 농업 모델과 '글로벌 자산운용 중심 금융도시 전북 건설에 적용 가능한 정책을 제안하는 등 향후 의정활동에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전북도의회 농산경제위원회(위원장 나인권) 소속 의원들이 지난 18일부터 7박 9일 일정으로 선진 스마트농업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네덜란드와 금융중심지로 급부상하고 있는 룩셈부르크 등을 방문하는 국외 정책연수를 추진하고 있다.

나 위원장에 따르면 최근 농업에 4차 산업혁명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팜이 우리 농업의 경쟁력 제고와 청년 유입을 촉진할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도내에는 2022년부터 규모 21.3ha 총사업비 829억원이 투입된 김제스마트팜혁신벨리가 운영되고 있으며, 2023년까지 스마트팜 면적을 229ha에서 350ha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에 농경위 의원들은 세계 최고

선진 스마트농업 정책 벤치마킹

도의회 농경위, 네덜란드 찾아 국외 정책연수 추진 '금융중심지' 룩셈부르크 찾아 투자유치위 역할 살펴

수준의 최첨단 ICT 기술을 활용해 농업의 생산성과 품질 향상을 실현하고 있는 네덜란드 델피사와 와게닝겐대학, 월드화터센터 방문해 시설원예 기술 및 운영 사례를 살펴보고 스마트팜 혁신벨리 및 시설원예 농업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어 농경위 의원들은 유럽 내에서 작지만 강한 나라로 통하며 지속적인 성장 낮은 인플레이션 및 5% 실업률

로 경제적으로 안정된 국가로, 금융과 IT중심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룩셈부르크의 투자유치위원회(LFF)와 금융감독청(CSSF)을 방문했다.

특히, LFF는 룩셈부르크를 금융중심지로 육성·발전시키기 위해 2008년 설립된 민·관 합동기구로 새로운 비즈니스 기회를 발굴·개발하고 자국내·외 투자자들을 금융시장에 연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농경위



전북의 미래 대한민국의 새만금